선거명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명	서울특별시 구로구을	
후보자명	박영선	기호		소속정당명	민주통합당
공약번호: 1	공약 제목 : 어린이 특별구 구로				

ㅇ 세부내용

- 지역내 구립어린이집 최소 4개 이상 증설하고 개방형 어린이집도 추가 확충
- 어린이가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 확충
- 민간어린이집 교사 처우를 국공립교사 수준으로 개선.
-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및 보호조례 제정

ㅇ 추진 방안:

신설되는 공공기관과 기존 지역시설의 유휴공간에 구립 어린이집을 설치하겠으며 일하는 여성들의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돕는 개방형 어린이집에 대한 국고 예산지원을 적극 유치하여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시설, 학교도서관, 공동주택내 유휴공간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동네 작은도서관을 두 배로 확충할 것입니다.

현재 민간 보육교사에게 지급되는 5만원 수당을 2배로 확대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400억 정도입니다.

공약번호: 2 공약 제목 : 생활이 즐거운 구로

ㅇ 세부내용:

- 지역 내 각종 개발 사업에 공공성 반영(지역민들을 위한 문화, 체육, 공위시설)
- 가리봉 재정비촉진사업 정상화 및 추진
- 구로3동 주민센터 건립과 구로2동 공원부지 확보
- 지하철 1호선 지상 구간 지하화 단계적 추진(철도변 주거지 방음시설 확충으로 소음 환경개선)
- 구로디지털 단지역(2호선)일대 수해대책 마련
- 구로동 올레길 조성

ㅇ 추진 방안:

신도림동 293-1번지 일대 준공업지역, CJ공장부지, KIKOX 구보세장 개발, 기계공구상가(구로 및 안성) 재개발, 골프연습장 철거 부지에 공원, 문화·체육시설이 들어 설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구로2동 약 3,000평 규모의 공원부지를 확보하여 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지연되고 있는 가리봉 재정비 촉진사업을 LH공사, 구로구청, 주민과 협의하여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정상화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단지에 있는 3동 주민센터를 건립하여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할 것이며 구로2동에 있는 공원 부지를 예산을 유치하여 매입, 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관내에 지상으로 통과하는 1호선 구간이 소음이나 각종 불편을 유발하고 지역을 단절하고 있어서 지하화에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서울·인천·부천 해당 국회의원 후보 공동공약으로 채택하고 추진할 것입니다.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주변일대 수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여 걱정없이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로동 관내 올레길을 단계적으로 조성하여 주민 휴식 공간과 생활체육 기회를 더욱 더 제공하겠습니다.

공약번호: 3 공약 제목 : 출퇴근이 즐거운 구로

ㅇ 세부내용:

- 구로1동 ㅇ 경인로 직결 지하도로 건설로 교통섬 문제 해소
- 신도림역 선상역사 조기완공으로 역 혼잡도 개선
- 구로2동 월드아파트 앞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
- 구로 기지창 단계적 이전

ㅇ 추진방안:

CJ공장부지 지구단위 계획과 연결하여 구로1동에서 경인로로 직접연결하는 지하도로를 건설하여 교통섬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국고 394억으로 착공된 신도림 선상역사 건설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주민이 신도림역을 편하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로철도차량기지 이전은 국토부, 기재부와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서울시정 개발연구원에서 시행한 차량기지 이적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에서 비용대비 효용이 높은 것으로 나와서 추진하는데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약번호: 4 공약 제목 : 어르신이 살기 좋은 구로

ㅇ 세부내용:

-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급여 대상자 10% 확대
- 노인 일자리 확대
- 경로당 및 복지관 확충

ㅇ 추진 방안:

현재 매달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 9만원을 2017년까지 두배로 인상하고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도 현재 70% 수준인 것을 2014년 80%, 2017년에 90%로 확대하겠습니다.

유아 돌보미, 스쿨존 아동안전보호, 지역문화재 발굴·관리단 등을 중심으로 노인 일자리를 더욱 확대하여 일하는 보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아파트에 살지 않는 어르신들을 위하여 소규모 경로당을 예산이 적게 드는 임대 방식으로 확충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경로당이 있는 곳 (최소 2군데) 중에서 활용가치가 높은 곳을 재건축해서 노인복지관으로 바꾸겠습니다.

공약번호: 5 공약 제목 : 골목상권과 중소기업이 튼튼한 구로

ㅇ 세부내용:

-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하여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중소기업 정책을 일원화하고 지원 전담조직의 위상강화
- 중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 전통시장·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SSM의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확대
-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강화를 통해 대기업의 무차별 사업확장으로 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 부당내부거래와 일감몰아주기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과세를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공정경쟁을 위한 법제도적 환경 조성 및 조세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특히, 비과세감면제도를 고용 창출과 연계 운용함으로써 일자리 확대를 지원
-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목표비율을 2017년까지 80%수준으로 확대하고,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의 수주기회 확대를 통하여 중소기업 경영안정 기반 마련
- 중소기업 R&D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 연구 역량을 강화
- 패자부활이 가능하도록 창업기업의 법인 설립, 유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
- ㅇ 추진 방안: 민주통합당 정책 과제
 -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 설치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하겠습니다.
 - 중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현행'연간 매출액 4,800만원(월400만원) 미만'에서'연간 매출액 8,400만원(월 7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도록 할 것이며 매입세액 증빙을 갖추기 어려운 사업자에게 특별히 한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상시적인 제도로 전환하여 영세자영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 현재 법률상 영업 제한시간을 '오전()시부터 오전8시까지'에서 '오후9시부터

오전10시까지'로 하는 것과 의무휴업일도 현행'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매월 3일 이상 4일 이내'의 범위로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추진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적합업종 위반 대기업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업조정 조치에 따른 대기업의 사업 이양을 권고가 아닌 이양을 강제하고 위반시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을 추진하겠습니다.
- 부당내부거래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저해성(경쟁제한성)의 위법성 구성요소를 삭제하고, 현저성을 완화하여 규제를 강화하고, 특혜를 받은 기업도 제재를 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고, 아울러 일감 몰아주기의 궁극적 수혜자인 총수 일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처벌규정도 명문화하는 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조세감면이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경제 사회적 여건 변화로 지원의 타당성이 낮아진 제도, 이용 실적이 적어 실효성이 낮은 제도, 정책적 지원 대상집단에 감면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제도 등을 우선적으로 축소하여 단계적으로 2017년에 국세수입 대비 감면비율을 2007년의 12.5% 수준으로 축소하고, 특히 임시투자세약공제를 대체한 현행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는 폐지하고 고용과 연계된 추가 공제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 정부의 각종 기관평가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비율을 적극 반영하고, 중소기업간 경쟁제도 등을 위반한 기관에 대한 적발 및 처벌을 강화하고, 2억 5천만원 미만 소액은 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우선 구매를 하도록 중소기업제품판로지원법과 소기업소상공인지원특별조치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국책연구개발사업 예산 중 현재의 중소기업 지원수준의 14%에서 해마다 10%씩 늘려 4년 후 50%가 되도록 하는 중소기업 지원예산 의무 할당제를 추진하고, 창업보육센터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통해 기술벤처 창업지원에서

전 주기적 보육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연대보증제도 개선, 실패 중소기업인을 위한 재창업자금 확대 등 창업기업의 법인설립, 유지 등 절차 간소화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